

2001년 번식우 생산비 조사결과

1. 송아지 두당 생산비 (조사기간: '01.1.1~12.31)

(단위: 원)

사육규모 비 목	5두 미만	5~9	10~29	30두 이상	평 균	구성비(%)	Raising size
	Less than 5 heads			More than 30 heads	Average	Component Ratio	Cost item
사 료 비	569,780	634,243	624,949	646,852	622,235	41.4	
(농후사료)	389,116	449,122	448,317	458,505	438,790	29.2	Feed
(조 사 료)	180,664	185,121	176,632	188,347	183,445	12.2	(Concentrated)
수 도 광 열 비	12,477	10,150	9,656	6,928	9,258	0.6	(Roughage)
방 역 치 료 비	18,148	16,967	23,043	26,087	22,381	1.5	Water, Power & Fuel
수 선 비	2,984	2,311	2,776	6,845	4,433	0.3	Veterinary & Medicine
(건 물)	1,474	722	2,353	5,254	3,131	0.2	Repair
(대 농 구)	1,510	1,589	423	1,591	1,302	0.1	(Building)
소 농 구 비	1,361	620	482	375	661	0.0	(Large implement)
제 재 료 비	23,384	22,243	21,548	21,002	21,840	1.5	Small implement
종 부 료	30,856	29,340	15,644	7,067	17,406	1.2	Other materials
차 입 금 이 자	12,990	5,411	31,451	36,194	25,801	1.7	Breeding fees
임 차 료	1,068	1,176	14,773	16,127	10,415	0.7	Interest on borrowed capital
고 용 노 력 비	615	2,150	3,964	9,653	5,285	0.3	Rent
기 타 잡 비	4,094	4,430	6,543	5,648	5,338	0.4	Hired labor
상 각 비	121,464	104,466	84,886	97,424	101,025	6.7	Miscellaneous expenses
(건 물)	65,835	59,819	40,476	46,644	51,359	3.4	Depreciation
(대 농 구)	55,629	44,647	44,410	50,780	49,666	3.3	(Building)
소 계 (A)	799,221	833,507	839,715	880,202	846,078	56.3	(Large implement)
Sub-total cost							
자 가 노 력 비	667,893	446,002	239,508	117,499	315,480	21.0	Family labor
고 정 자 본 이 자	288,962	313,251	240,582	273,534	274,544	18.3	Fixed capital interest
유 동 자 본 이 자	33,292	35,596	33,922	34,142	34,077	2.3	Liquid capital interest
토 지 자 본 이 자	19,978	28,852	31,924	39,498	31,854	2.1	Land capital interest
비 용 합 계 (B)	1,809,346	1,657,208	1,385,651	1,344,875	1,502,033	100.0	Total cost
부 산 물 수 입 (C)	58,539	75,518	63,005	51,910	58,998		By-products
경 영 비 (A-C)	740,682	757,989	776,710	828,292	787,080		Operating cost
생 산 비 (B-C)	1,750,807	1,581,690	1,322,646	1,292,965	1,443,035		Production cost
번 식 율 (%)	74.0	70.8	85.1	77.9	77.8		Rate of calf crop

2. 번식우 두당 사육비

(단위: 원)

사육규모		5두 미만	5~9	10~29	30두 이상	평 균	Raising size
비 목		Less than 5 heads			More than 30 heads	Average	Cost item
일 비	사 료 비	421,466	448,727	531,832	503,704	484,076	Feed
	(농후사료)	287,829	317,754	381,518	357,038	341,588	(Concentrated)
	(조 사 료)	133,637	130,973	150,314	146,666	142,488	(Roughage)
	수도광열비	9,229	7,181	8,217	5,395	7,166	Water, Power & Fuel
	방역치료비	13,424	12,004	19,610	20,314	17,495	Veterinary & Medicine
	수 선 비	2,207	1,635	2,362	5,330	3,450	Repair
	(건 물)	1,090	511	2,002	4,091	2,457	(Building)
	(대 농 구)	1,117	1,124	360	1,239	993	(Large implement)
	소 농 구 비	1,007	439	410	292	505	Small implement
	제 재 료 비	17,297	15,737	18,337	16,354	16,954	Other materials
	종 부 료	22,824	20,758	13,313	5,503	13,271	Breeding fees
	차입금이자	9,609	3,828	26,765	28,184	20,449	Interest on borrowed capital
	임 차 료	790	832	12,572	12,558	8,336	Rent
	고용노력비	455	1,521	3,373	7,517	4,157	Hired labor
기 타 잡 비	3,028	3,134	5,568	4,398	4,189	Miscellaneous expenses	
상 각 비	89,847	73,910	72,238	75,864	78,040	Depreciation	
(건 물)	48,698	42,322	34,445	36,322	39,532	(Building)	
(대 농 구)	41,149	31,588	37,793	39,542	38,508	(Large implement)	
소 계		591,183	589,706	714,597	685,413	658,088	Sub-total cost
자 가 노 력 비		494,040	315,546	203,822	91,497	239,563	Family labor
고 정 자 본 이 자		213,745	221,625	204,735	213,001	211,529	Fixed capital interest
유 동 자 본 이 자		24,626	25,184	28,868	26,586	26,441	Liquid capital interest
토 지 자 본 이 자		14,778	20,413	27,167	30,757	25,136	Land capital interest
비 용 합 계		1,338,372	1,172,474	1,179,189	1,047,254	1,160,757	Total cost

3. 번식우 두당 수익성

1) 조수입

(단위: 원)

사육규모 Raising size 구분 Classification	5두 미만 Less than 5 heads	5~9	10~29	30두 이상 More than 30 heads	평균 Average
송아지 판매수입 Calf sales	1,161,245	1,137,181	1,234,715	1,053,270	1,130,916
부산물 판매수입 By-Products sales	35,544	52,549	53,617	40,422	43,861
- 종모우도태 Sire culling	0	27,441	32,565	26,613	21,886
- 구비 판매 Waste	34,757	24,303	20,058	12,748	21,026
- 공포대 판매 Empty sack sales	787	805	994	1,061	949
사역수입 Labor	7,757	880	0	0	1,920
계 Total	1,204,546	1,190,610	1,288,332	1,093,692	1,176,697

2) 수익성

(단위: 원)

사육규모 Raising size 구분 Classification	5두 미만 Less than 5 heads	5~9	10~29	30두 이상 More than 30 heads	평균 Average
조수입(A) Gross receipts	1,204,546	1,190,610	1,288,332	1,093,692	1,176,697
일반비(B) Operating cost	591,183	589,706	714,597	685,413	658,088
비용합계(C) Total cost	1,338,372	1,172,474	1,179,189	1,047,254	1,160,757
소득(A - B) Income	613,363	600,904	573,735	408,279	518,609
순수익(A - C) Net income	△ 133,826	18,136	109,143	46,438	15,940

2001년 비육우 생산비 조사결과

1. 비육우 생체 10kg당 생산비 (조사기간: '01.1.1~12.31)

(단위: 원)

사육규모 구분	10두 미만 Less than 10 heads	10~29	30~49	50~99	100두 이상 More than 100 heads	평균 Average	구성비(%) Component Ratio	Raising size Cost item
가축비	22,541	21,115	22,579	23,818	20,291	22,046	44.3	Livestock
사료비	14,476	14,151	14,757	16,908	13,914	14,674	29.5	Feed
(농후사료)	12,340	11,942	12,810	13,592	11,726	12,381	24.9	(Concentrated)
(조사료)	2,136	2,209	1,947	3,316	2,188	2,293	4.6	(Roughage)
수도광열비	193	157	178	201	187	183	0.4	Water, Power & Fuel
방역치료비	317	400	388	543	445	394	0.8	Veterinary & Medicine
수선비	138	130	131	139	109	131	0.3	Repair
(건물)	112	113	80	43	64	92	0.2	(Building)
(대농구)	26	17	51	96	45	39	0.1	(Large implement)
소농구비	21	9	10	5	3	12	0.0	Small implement
제재료비	479	622	621	799	651	598	1.2	Other materials
차입금이자	390	644	486	305	447	458	0.9	Interest on borrowed capital
임차료	11	52	0	83	9	28	0.1	Rent
고용노력비	245	84	19	2	413	172	0.3	Hired labor
기타잡비	157	85	101	140	78	119	0.2	Miscellaneous expenses
상각비	1,702	1,483	1,273	1,526	973	1,464	2.9	Depreciation
(건물)	816	735	619	775	520	722	1.4	(Building)
(대농구)	886	748	654	751	453	742	1.5	(Large implement)
소계(A)	40,670	38,932	40,543	44,469	37,520	40,279	80.9	Sub-total cost
자가노력비	6,238	4,599	3,242	2,668	1,329	4,267	8.6	Family labor
고정자본이자	1,351	1,276	1,233	1,476	1,086	1,295	2.6	Fixed capital interest
유동자본이자	3,724	3,550	3,543	4,329	3,652	3,730	7.5	Liquid capital interest
토지자본이자	213	180	252	224	126	199	0.4	Land capital interest
비용합계(B)	52,196	48,537	48,813	53,166	43,713	49,770	100.0	Total cost
부산물수입(C)	483	415	311	516	439	443		By-products
경영비(A-C)	40,187	38,517	40,232	43,953	37,081	39,836		Operating cost
생산비(B-C)	51,713	48,122	48,502	52,650	43,274	49,327		Production cost
판매시체중(kg)	592	591	592	577	604	592		Marketed weight

2. 비육우 두당 사육비

(단위: 원)

사육규모		10두 미만	10~29	30~49	50~99	100두 이상	평 균	Raising size
구 분		Less than 10 heads				More than 100 heads	Average	Cost item
일 비	가 축 비	1,334,427	1,247,896	1,336,658	1,374,275	1,225,574	1,303,587	Livestock
	사 료 비	856,990	836,349	873,609	975,608	840,419	867,555	Feed
	(농 후 사 료)	730,538	705,780	758,359	784,267	708,267	732,097	(Concentrated)
	(조 사 료)	126,452	130,569	115,250	191,341	132,152	135,458	(Roughage)
	수 도 광 열 비	11,422	9,263	10,520	11,586	11,290	10,812	Water, Power & Fuel
	방 역 치 료 비	18,744	23,663	22,962	31,338	26,902	23,314	Veterinary & Medicine
	수 선 비	8,204	7,652	7,744	7,986	6,582	7,744	Repair
	(건 물)	6,638	6,671	4,733	2,469	3,863	5,433	(Building)
	(대 농 구)	1,566	981	3,011	5,517	2,719	2,311	(Large implement)
	소 농 구 비	1,218	508	605	313	176	699	Small implement
	제 재 료 비	28,342	36,784	36,776	46,120	39,328	35,371	Other materials
	차 입 금 이 자	23,102	38,064	28,776	17,588	27,001	27,128	Interest on borrowed capital
	임 차 료	634	3,100	0	4,799	526	1,659	Rent
	고 용 노 력 비	14,525	4,976	1,129	123	24,926	10,293	Hired labor
	기 타 잡 비	9,286	5,048	5,997	8,095	4,725	7,047	Miscellaneous expenses
	상 각 비	100,768	87,685	75,384	88,052	58,788	86,522	Depreciation
	(건 물)	48,288	43,468	36,642	44,699	31,420	42,684	(Building)
(대 농 구)	52,480	44,217	38,742	43,353	27,368	43,838	(Large implement)	
소 계		2,407,662	2,300,988	2,400,160	2,565,883	2,266,237	2,381,731	Sub-total cost
자 가 노 력 비		369,309	271,811	191,898	153,966	80,295	252,229	Family labor
고 정 자 본 이 자		79,984	75,394	73,003	85,175	65,613	76,606	Fixed capital interest
유 동 자 본 이 자		220,459	209,797	209,765	249,807	220,571	220,365	Liquid capital interest
토 지 자 본 이 자		12,610	10,615	14,923	12,916	7,637	11,829	Land capital interest
비 용 합 계		3,090,024	2,868,605	2,889,749	3,067,747	2,640,353	2,942,760	Total cost

3. 비육우 두당 수익성

1) 조수입

(단위: 원)

사육규모 Raising size 구분 Classification	10두 미만 Less than 10 heads	10~29	30~49	50~99	100두 이상 More than 100 heads	평균 Average
비육우 판매수입 Beef cattle sales	3,505,632	3,637,304	3,925,280	3,789,853	4,481,904	3,774,065
부산물 판매수입 By-Products sales	28,597	24,502	18,385	29,760	26,512	26,203
- 구비 판매 Waste sales	26,021	22,238	16,602	27,657	25,485	24,096
- 공포대 판매 Empty sack sales	2,576	2,264	1,783	2,103	1,027	2,107
계 Total	3,534,229	3,661,806	3,943,665	3,819,613	4,508,416	3,800,268

2) 수익성

(단위: 원)

사육규모 Raising size 구분 Classification	10두 미만 Less than 10 heads	10~29	30~49	50~99	100두 이상 More than 100 heads	평균 Average
조수입(A) Gross receipts	3,534,229	3,661,806	3,943,665	3,819,613	4,508,416	3,800,268
일반비(B) Operating cost	2,407,662	2,300,988	2,400,160	2,565,883	2,266,237	2,381,731
비용합계(C) Total cost	3,090,024	2,868,605	2,889,749	3,067,747	2,640,353	2,942,760
소득(A - B) Income	1,126,567	1,360,818	1,543,505	1,253,730	2,242,179	1,418,537
순수익(A - C) Net income	444,205	793,201	1,053,916	751,866	1,868,063	857,508

사양관리에 대한 질의응답

Q&A

아래 내용은 전남 담양군 용면 한정무씨가 번식우 사양관리 중 의문점을 질의해 오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사양관리 및 한우정책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개월 수 및 임신 진단 방법

수정후 7~8개월령에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태아가 7개월령 이후에 급격히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소에 따라 배가 부르는 정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이 많이 켜진 소일수록 배부른 정도가 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의 임신을 감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외진법, 직장검사법, 질검사법, 초음파진단법 등이 있으며 직장검사 검사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초음파진단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 외진법

가축이 임신을 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즉, 영양상태가 양호해지고 거동이 침착해지며, 복부가 팽대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발정이 중지되는 것이다. 수정후 2-4개월이 경과해도 발정이 오지 않을 때에는 임신으로 보는데 이것을 NR(Non-Return)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수태율과는 3~15%의 차이가 있다.

나. 직장 검사법

직장검사법은 임신을 진단하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서 주로 소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다. 직장으로 손을 직접 집어 넣어 난소, 자궁, 궁부, 중자궁동맥 등을 만져서 임신여부 및 태아의 일령을 감정한다. 빠르면 30~40일령에도 감정할 수 있지만 70일령이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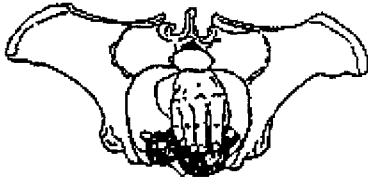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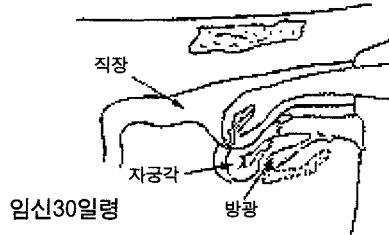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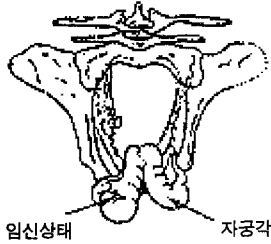
다. 질 검사법

질경을 사용하여 소나 말의 질내를 관찰하여 질과 자궁질부의 상태에 따라 임신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소의 경우 수정후 2-3개월이 되면 임신한 개체에서는 질경을 삽입할 때 상당한 저항을 느끼게 되며, 자궁질부는 긴축하여 작아지고, 자궁외부는 꼭 닫혀 있으며, 점액은 상당히 점착성을 띤다. 임신 4개월에는 질벽이 건조하고 자궁외부에서 뚜렷한 점액 덩어리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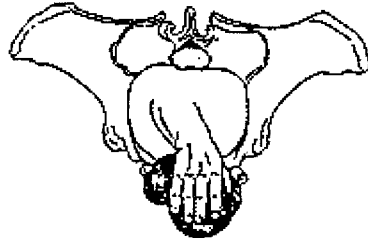
라. 초음파 진단법

초음파 진단법은 직장속에 탐촉자를 집어넣어 중자궁동맥의 파동을 탐지하거나, 육질관정용 초음파진단기에 직장검사용 탐촉자를 부착하여 진단을 실시 한다. 특히 육질관정용 초음파진단기의 경우 20일령이후부터 조기 임신진단이 가능하다.

임신 감정방법과 자궁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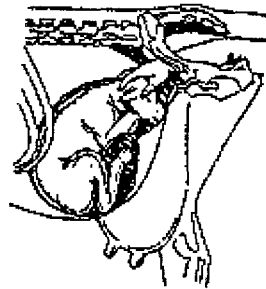
임신70일령



임신90일령



임신110일령



분만에 가까워졌을 때의 정상위치

분만전후 기립불능의 원인 및 치료

가. 원 인

- (1) 분만시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 난산에 의한 기계적 자극, 무리한 견인 등으로 골반주위의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있을 때 발병한다.
- (2) 유열의 치료지연으로 기립불능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체중의 압력으로 후구에 혈행장애가 일어나 후구가 마비되어 발생하는 예도 있다.

나. 증 상

- (1) 별다른 증상없이 분만직후부터 72시간 이내에 기립불능에 빠져 칼슘제를 투여해도 기립하지 않는 경우에 산전산후 기립불능증 또는 기립불능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 (2)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 체온, 맥박, 식욕은 정상이다. 머리를 옆으로 꼬거나 체온이 떨어지는 등 유열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 (3) 혈액속의 무기인이 대부분의 예에서 현저히 저하되고, 혈청과 근육속의 칼슘량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 (4) 대개의 경우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일어나지 못한다.

다. 예방 및 치료

- (1) 분만전 20일간은 칼슘함량이 낮은 사료를 급여하고, 분만전 2~8일전에 비타민D3제를 1,000단단위 근육 주사 한다.
- (2) 또한 난폭하거나 무리한 조산(助産)을 피하고 분만직후에 인산칼슘 200g을 경구투여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 (3) 일단 본병이 발생하면 치료하기 어렵다. 기립불능에 빠지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깔짚을 두겹게(약 30cm) 깔아주고 2~3시간 간격으로 누워있는 방향을 바꾸어 준다.
- (4) 발병시초에 칼슘제를 2회 주사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소에 대해서는 즉시 인제제(네오뉴린 300~500ml)를 정맥주사하는 동시에 염화칼리를 1회 60g씩 6시간마다 4회 입으로 투여한다.
- (5) 또한 20% 포도당액 1,000ml에 15% 염화칼리액 100ml를 잘 섞어서 주사해도 좋다.

허약한 송아지의 원인 및 예방법

송아지가 허약하게 태어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어미소 영양결핍(특히 비타민 A와 D)에 의한 송아지 허약증이며, 유전적 허약증, 어미소가 질병(아까바네병, 소바이러스성설사병등)에 감염, 너무 추운 곳에서의 송아지 분만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어미소에 대한 영양관리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주어야 하며, 분만 7~8일전에 어미소에 비타민E와 세레늄 및 비타민 D를 주사하면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하며, 허약하게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는 비타민E와 세레늄제제를 주사하고 초유를 가급적 빠른 시간에 먹여 주거나 수혈을 실시하면 어느정도 송아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임신도중에 질에서 점액이 나오는지 여부

소에서는 임신이 되었어도 점액이 나오고 발정이 오며 발정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을 한 후 발정이 오면 임신감정을 실시하여 임신이 안된 소에만 수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임신된 소라도 발정이 와서 수정을 시키면 쌍태임신이 되어 수정된 간격으로 두 번 분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중복임신이라고 합니다.

한우안테나 - News

□ “구제역 종식 선언은 새로운 방역의 시작”

농림부는 지난 14일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구제역 종식 선언이 구제역 방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인식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4일로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고, OIE(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의거, 청정국 지위는 최종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완료후 3개월이 경과한 9월 24일 기본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청정국 인증신청과 함께 오는 11월말 개최 예정인 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올해안으로 청정국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3개월 이상이나 계속된 비상방역활동을 지원해 준 관계기관과 단체, 그리고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함과 아울러 특히 군부대 병력 연인원 4만4천명과 장비 1천4백14대, 경찰 연인원 5만1천5백88명 등의 지원이 큰 힘이 됐음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피해농가에 모두 1천4백29억원을 지원 조치중에 있다면서 모든 보상단가가 2000년에는 50만원이 었으나 올해에는 농가가 93만5천원을 요구해 합리적으로 조정, 70~75만원선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제역 방역 당국과 관련 기관 단체는 물론 축산농가들도 이번 구제역의 발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제역 종식 선언을 새로운 구제역 방역의 시작으로 시작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축산신문 9.14】

□ 수해농가 축산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림부는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영농지원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키로 했다.

농축산경영자금 연장과 감면기간은 피해규모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30~50%는 1년이다.

농림부는 이번 수해 피해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농경지와 농림시설복구 비용과 이재민 구호와 생계지원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집중 호우로 입은 축산 피해는 닭 43만3천마리, 돼지 9천마리가 폐사되는 등으로 지난 13일 오전 7시 현재 32억5천5백여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축산신문 9.14】

□ 정읍 한우 4농가 8백만원기탁

정읍지역 한우농가 4명이 각 2백만원씩 8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한우만만운동'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김상준 전북도지회장과 진기춘 정읍지부장, 정태호 하이마블대표, 박승술 정읍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6일 과천 청사 앞에서 개최된 생우수입 저지 및 한우산업발전 쉼기대회장에서 남호경 한우만만운동 추진본부장에 한우산업을 지키는데 써달라며 성금 8백만원을 전달해 한우농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김상준지회장은 '한우만만운동'을 처음 모금할 당시 1백만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며 지난해 정읍에서의 생우수입 저지 활동에 적극 앞장선바 있어 더욱 의미가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상준지회장과 진기춘지부장, 정태호대표, 박승술사무국장은 한우산업을 위한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우 번식과 비육을 같이하는 전형적인 한우 일관사육 농가들이기도 하다.

이들을 대신해서 김상준 지회장은 "한우만만운동에 보다 많은 한우농가들이 참여하여 한우산업을 한우농가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8.12】

□ 못믿을 '축산 환경개선제' 판친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축산 환경개선제가 시중에 마구 나돌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축산 환경개선제는 악취 제거와 증체, 육질 개선 등 여러 용도로 이용되며, 효소제·생균제·활성탄·목초액 등 종류도 다양하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환경개선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환경개선제 제조업체가 최근 2년 사이 전국에 150여개로 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환경개선제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도 없는 데다 판매값도 1kg당 1,000원대부터 최고 몇만원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홍성에서 돼지 1,000여마리를 사육하는 정일희씨(46)는 "환경개선제를 광합성 미생물제제 등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조업체 부탁으로 쓰는 한가지는 한달 구입비만도 20여만원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다"며 "환경개선제가 악취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업체들이 홍보하는 다른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올 하반기에 농림부와 협의해 환경개선제 효과 검증 체계를 마련, 현재 시판되는 환경개선제 중에서 10% 가량을 선별해 축산농가에 권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신문 8.14】

□ 생후 7개월 이내 거세해야 소 거세장려금 지급

내년부터는 생후 7개월 이내에 거세한 소에 한해 거세장려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올해까지는 현행대로 거세장려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이같이 하되, 2004년부터는 거세장려금을 품질고급화로 전환해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거세장려금 지급에 대한 기금조정심의회 지적과 관련, 브랜드경매제 도입 등을 통해서 거세로 인한 품질향상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시킨다는 계획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신문 8.12】

□ 7월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가입한 경우만 거세장려금 지급

7월부터 거세장려금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급됨에 따라 한우 거세를 기피하는 농가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우 비육농가들에 따르면 거세농가는 지난해 추석 전부터 비거세우와 거세우의 가격차가 좁혀지면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부터는 감소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이런 거세기피현상이 지속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7월부터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되지 않은 송아지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농가들은 거세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 거세를 하지 않는 농가들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월 현재 도축된 한우 수소의 거세율이 40.7%로 전월보다 3.7%포인트 증가했고 전년동기보다는 21.7%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고급육 시장도 암소에서 거세우로 점차 전환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 추석 이후부터는 도축우의 거세율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급육 시장의 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전부터 거세를 하지 않은 소들이 올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의 한 비육농가는 "거세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우수축 출하포상금을 다시 만들고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만약 이대로 방치하면 내년부터는 그 동안의 거세장려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7.24]

□ 흥천한우 '늘푸름' 1년 결실...고급육화 선도

흥천한우 '늘푸름'이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브랜드 경매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농협 서울축산물 공판장에서 브랜드한우 경매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브랜드 경매를 1년동안 지켜본 한우 브랜드 관계자들은 매주 수요일 8~16두씩 출하해 B1등급 이상 출현율이 58.2%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인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데 대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렇게 흥천한우 '늘푸름'이 브랜드로서 성장하기까지는 흥천군과 한우농가, 서울공판장 관계자, 중도매인 등 숨은 공로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중 한우농가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한 한우협회 흥천군지부 최부규지 부장과 초음파 진단을 통해 육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 흥천군청 황수근씨를 만나보았다.

▶ 최부규 지부장

"흥천한우 '늘푸름'을 1년여 동안 브랜드한우 경매를 실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공판장에 매주 수요일 출하하기로 한 두수를 맞추는 일이었다"

최부규 지부장은 "농협 서울 축산물 공판장과 브랜드 한우 경매를 하기로 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매주 8두씩 출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B1등급 이상 출현율이 낮게 나오면 어찌지라는 생각이 앞 선다"고 한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최지부장은 브랜드 경매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서울 축산물 공판장을 찾았다고 한다. 누가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꼭 직접 봐야만 안심이 된다고 한다.

최지부장은 "매주 수요일 브랜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이 화요일날 8두를 출하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브랜드 경매 후보우를 갑자기 일반 출하를 하겠다고 하는 날이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여기 저기 수소문해서 출하두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브랜드 경

매가 일반 출하보다 값을 더 받는 것이 인식되면서부터는 브랜드 경매를 하겠다는 농가들이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최지부장은 “브랜드 한우 경매를 두 번째로 실시하고 있는 합천 ‘황토우’가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출하두수를 하루라도 어김없이 맞추는 일이 기본이다”라고 강조하고 “합천 한우농가들에게 고급육 생산과 함께 출하 약속을 어기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 제3, 제4의 브랜드경매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황수근 홍천군청 산림축산과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정확하게 등급을 예측할 수 있으면 농가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홍천군청 황수근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육질을 판단해서 농가들에게 출하시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초기에는 농가들의 신뢰가 부족해 농가 마음대로 출하를 하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차례 진단을 해주고 결과가 맞게 나오는 것을 보고는 출하시기를 어기는 법이 없어졌다고 한다. 특히 “2등급이 나올 소가 2~3개월을 더 사육하면 1등으로 향상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때 소값이 50~8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한다. 또 이런 결과들은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는 좋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축산신문 7.19】

□ 한우 세쌍둥이

충북 옥천에서 한우로서는 드물게 세 쌍둥이가 태어나 한우업계에 희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웅천리에서 한우 번식우 3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웅천농장의 박효식, 임영애 부부는 월드컵 4강과 함께 한우 세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기리기 위해 3남매인 송아지의 이름도 ‘희’, ‘당’, ‘크’로 지었다고 한다

【축산신문 7.19】

□ 생우 수입 반대 범 농업인 차원으로 확산

농민단체협의회가 생우 수입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 전국한우협회와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생우 수입반대 운동이 범 농업인 차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농민단체협의회(회장 박병국)는 지난 11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단체장회의를 갖고 수입생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입생우는 단순히 한우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전체의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 수입생우 반대 성명과 함께 수입생우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 농민단체장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구성된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생우 수입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없으며 수입생우에 대한 입장만 결정하면 된다”고 지적하고 “수입생우를 단순 수익성만 따지고 들여온다면 우리 농산물 중에 경쟁력이 있어서 수입되지 않을 농산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런 논리만 따진다면 한·칠레 FTA협상을 반대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지금까지 수입 농산물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농단협이 앞으로 수입 생우문제에 대해 전국한우협회의 의견에 적극 협조하고 농민단체들의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수입 생우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신문 7.16】

□ 하룻밤에 모기 2만마리 잡는다. '블랙홀' 개발

산·학·연 협동으로 모기를 확실하게 유인하여 퇴치하는 「블랙홀」을 개발하는데 성공, 앞으로 관련축산농가 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트랩(주)(대표 홍정화)와 한국산업기술대학 이경원교수팀이 공동으로 2000년 시험개발에 성공, 지난 해부터 본격 생산하여 판매중인 「블랙홀」은 광촉매(TiO₂ 코팅)작용으로 CO₂를 발생하여 공기정화와 살균효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 이경원교수팀은 “「블랙홀」은 모기만을 적극 유인, 퇴치하는데 지난 2000년 경기도 소재지역 축사에서 「블랙홀」을 이용, 시험연구한 결과 하룻밤에 모기 2만마리를 잡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블랙홀」을 이용할 경우 모기에 의한 스트레스를 크게 줄임으로써 가축의 산유량·증체율·산란율·번식을 증가에 의한 소득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품은 직경 25cm, 높이 30cm이며 무게 1.7kg로 가벼워 축사 어디든 자유자재로 설치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전력은 30와트 또는 2백20볼트로 월평균 전기료는 2천원 내외이다. 소비자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7만5천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축산신문 7.16】

□ “양축가 실익주는 서비스를”

농협중앙회 사료분사(사장 김병욱)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농협구례교육원에서 각 사료공장 축산컨설턴트들과 고객지원과장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 컨설팅능력 제고'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축산컨설턴트들은 전진대회를 갖고 양축농가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국내 축산업에 기여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문에서 컨설턴트들은 양축농가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서비스지원에 앞장서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PI법과 축종별 고품질·고급육 생산 지도요령과 마케팅기법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축산신문 7.12】

□ 월드컵 이후 소값

월드컵 기간에 한우 소비가 감소하며 소값도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전문가에 따르면 외국인이 많이 찾는 월드컵 기간동안 불고기 등으로 한우 쇠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오히려 소비가 감소해 관계자들의 예상이 빗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월과 8월에는 소비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소값도 강세를 보일 것이며 9월들어서도 추석 등의 영향으로 소값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런 소값 전망에는 한육우 사육두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된 점과 수입 냉장육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냉장육의 냉동유통이 허용되었고 달리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육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으로 수입 냉장육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큰 폭의 오름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암소의 경우는 송아지값이 지속적으로 좋아 번식에 대한 농가들의 의욕이 살아나고 있으며 그동안 암소 도축이 많았던 이유로 앞으로 암소 도축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고급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가격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어 거세우와 함께 암소값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축산신문 7.12】

□ <뜨거운 감자 생우수입>검역계류장 사용신청 - 9월말경 수입

호주산 생우 검역계류장 사용신청이 8월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청됐다.

여기다 전국한우협회는 8월6일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서 한우농가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생우수입규탄 및 한우산업 발전결의대회를 갖는 등 생우수입이 한우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도 대두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C&A인터네셔널은 지난 3일 호주산 생우 851마리에 대한 검역계류장 사용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청했다. 이들 소는 모두 거세우로 생체중 450kg 정도의 16~18개월령 소로 알려졌다. C&A인터네셔널은 검역계류장 사용신청을 통해 이들 소를 오는 9월 6일 호주 남부의 포트랜드항에서 선적, 9월 26일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C&A인터네셔널 대표인 김모씨는 지난 5월 생우수입을 위해 (주)한국영농법인 축산물수출입사업단을 설립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업체가 강력 반발하자 주한 호주대사관은 지난 6월4일 '대한국 산소수출에 대한 호주대사의 입장' 발표, "호주정부는 그동안 산소 수입이 한국 소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한국농가의 시각을 피하기 위해 생우수출을 오는 추석이후로 연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기만 늦춰진 호주산 생우의 수입이 지난 7월 25일 지난해 6월 중단한 한국으로의 생우수출을 재개키로 했다는 주한 호주대사관의 입장표명으로 호주산 생우가 조만간 국내에 수입될 것으로 예고됐으며, C&A인터네셔널의 검역계류장 사용신청으로 현실화되게 됐다.

이에 따라 C&A인터네셔널이 수입할 호주산 생우는 검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5일간의 검역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경이면 농가에 입식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난해 호주산 생우수입과정에서 발생한 블루팅병과 같은 검역과정상 문제가 발생하면 35~105일간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가입식 지연이 불가피하다. C&A인터네셔널이 수입하는 호주산 생우는 화성의 목장에서 사육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농가반응

한우농가들은 생우수입이 가져올 심리적 요인이 한우산업을 붕괴로 몰아갈 것이라며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 수입생우 농가입식가격은?

농림부는 호주산 수입생우의 농가입식가격이 생체중 450kg기준으로 마리당 220만2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지 소값 136만9000원에 관세 56만원과 기타 제비용 29만1000원을 합하면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생우와 쇠고기에 대한 수입관세는 올해 40.9%이다. 이같은 수입생우 농가입식가격은 같은 크기의 한우가격 332만6000원에 비해 110만6000원이 낮은 수준이다.

◇ 수입생우 관련대책

국내 검역계류능력을 감안할때 851마리이다. 이들 소를 생체중 600~650kg으로 사육해 도축할 경우 생산되는 쇠고기는 2100톤 정도에 달한다. 정부는 수입생우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기준에 맞춰 검역을 철저히 하고 외래 악성질병 유입차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에 따라 검역과 동시에 개체구분관리를 위해 이표나 낙인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생우사육 및 거래단계에서 검역증사본을 첨부토록 하는 동시에 도축후 소매단계에서는 원산지이외에 출생국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식육판매업소에 거래기록의무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26일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도축기능 폐쇄철회 쟁기대회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도축기능 폐쇄철회를 위한 쟁기대회가 8월26일 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쟁기대회에는 양축농가, 서울축산물공판장 발전협의회, 중도매인, 공판장 관련 단체 및 업체 관계자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도축기능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태호·정용근)는 이번 집회를 통해 서울시의 서울축산물공판장 도축기능 폐쇄방침을 백지화시키고, 양축농가를 비롯한 중도매인, 협력업체들의 도축기능 폐쇄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집중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8.12】

□ 생우수입 결사저지, 한우보조금 삭감 반대

전국에서 상경한 한우농가 3000여명은 생우수입 결사저지와 한우보조금 삭감 반대를 천명하고 한우산업 지키기에 적극 동참을 결의했다. 전국한우협회가 8월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서 개최한 '생우수입 규탄 및 한우산업발전 결의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돈독오른 수입업자 한우죽이는 수입생우' '한우죽이는 수입생우 농가죽이는 생우사육' '한우산업 예산축소 한우종자 씨말린다'는 글귀가 적힌 피켓과 프랜카드, 만장 등을 들고 생우수입과 농림부의 내년도 한우산업 보조금 감축을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밖으로는 생우수입을 저지하고, 안으로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의 시행위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고 수입생우 저지, 생우수입 진실규명, 한우지키기 적극동참, 한우예산축소 봉쇄, 안전한 고품질 한우고기 공급 최선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충남지역 한우농가 400여명은 상결길에 오는 9월 26일경 수입이 예정된 호주산 생우 사육지로 알려진 경기 화성군 T목장에 들러 생우수입을 규탄했다.

【농수축산신문 8.7】

□ <진단>쇠고기 특수부위 유통 과제

쇠고기 특수부위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늑간살, 안창살, 부채살, 토시살, 살치살, 새치살, 치마살, 제비추리, 알등심, 채끝 등 아직은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쇠고기 특수부위가 최근 백화점과 대형정육매장을 중심으로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접근해 가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육매장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쇠고기가 1차 가공을 했다면, 특수부위는 2차 가공까지 해 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였다"고 설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불가식 고기가 전혀 없고 맛이 색다르기 때문에 구매에 잇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백화점의 판매전략과 소비자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살치살, 알등심, 꾸리살 등 특수부위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와 관련 축산물유통 전문가와 유통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관련 축산물 유통업계 한 전문가는 "현상화에서 쇠고기를 특수부위로 세분화해 유통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단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안심, 등심, 우둔 등의 판매에서 꽃등심, 새치살 등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5배정도 더 세분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 유통단계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유통업체를 통한 특수부위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일부 백화점과 대형정육매장은 자구책으로 식

육처리가능사를 채용해 직접 특수부위 제품을 만들어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쇠고기 유통시장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속에 특수부위 시장이 틈새시장으로 새로 생겨나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게 유통업체의 진단이다. 유통업체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유통업체들도 쇠고기 특수부위를 유통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7.24】

□ 한우 지키기 만만운동에 3252개 단체 및 농가 참여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100일간 한우 지키기 만만운동에 3252개 농축산관련 단체 및 한우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당초 한우 지키기 만만운동을 100일간 실시기로 했으나 지난 5월 구계역 발생에 따른 참여열기 저조로 한우인의 날인 오는 9월 14일까지 이 운동을 연장해 실시기로 한 가운데 100일이 경과한 지난 16일 현재 이같은 한우농가와 단체의 참여속에 8728만6000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지역별 모금액은 서울 62만원, 경기 450만원, 강원 505만원, 충북 104만원, 충남 876만원, 전북 1036만원, 전남 757만원, 경북 1258만원, 경남 1002만5000원이다. 또 지역축협과 지역농협,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사료회사, 쇠고기 유통회사, 동물약품유통회사, 낙우회 등 단체가 2678만1000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농수축산신문 7.24】

□ <진단>한우 수소 크게 키워 출하한다

한우를 울들어 크게 키워 출하하는 추세가 급격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고급육 생산은 물론 송아지가격이 초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생산원가를 낮추려는 사육농가의 지구노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6월 도축실적에 따르면 한우수소 도축체중이 610kg을 기록해 지난해 평균 581kg보다 무려 29kg이나 증가했다. 또 이같은 도축체중은 2001년의 572kg보다는 38kg이나 높아진 것이다.

특히 한우수소 도축체중은 울들어 급격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우수소 도축체중은 지난 1월 587kg에서 2월 582kg으로 약간 낮아진후 3월 594kg, 4월 605kg, 5월 615kg으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임경철 한우협회 경남도지회장은 “최근 거세비육을 통해 생산한 한우고기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사육기간을 높이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전하고 “브랜드육인 남해화전한우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육기간을 24개월령에서 28개월령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이 사육기간을 늘린 결과 거세한우고기의 깊은 맛이 더해지고 1등급 출현율도 종전보다 10~20%포인트까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문연 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은 “한우비육농가들이 거세한우의 맛을 높이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송아지가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소를 장기간 사육해 출하체중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평균 209만8000원을 기록한 한우 수송아지 가격은 지난달 평균 233만8000원으로 상승하는 등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7.18】

□ 한우사육마리수 바닥쳤다

1996년 9월 289만1000마리를 정점으로 거의 6년간 내리막세를 지속한 한우 사육마리수가 지난 6월을 기점

으로 증가세로 반전, 한우산업이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지난 6월 1일 현재 가축통계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144만4800마리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5.6%인 7만 7000마리 증가하면서 그동안 지속돼 온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됐다. 특히 가임암소가 61만2000마리를 기록, 전분기보다 3.2%인 1만9000마리 증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문연 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은 “1996년 이후 줄곧 감소하기만 한 가임암소가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히고 “지난 상반기중 한우정액 공급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등 번식기반이 회복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수 한우협회 익산시지부장은 “현장에서 한우 번식의욕이 높아지고 있고, 비육농가도 밀소구입이 어려워 번식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석재 한우협회 충북도지회장은 “봄철에 송아지 생산이 많았고, 한우고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 월드킵 특수도 없어 한우사육마리수가 늘었다”고 진단하고 “추석에 많은 물량이 도축되기 때문에 그 이후 연말까지 사육마리수가 줄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7.8】

□ '보리한우' 나왔다

양질의 총체보리 담근먹이(사일리지)를 위주로 한 TMR 사료를 먹여 키운 '보리한우'가 나왔다.

최근 축산기술연구소는 양질의 총체보리 담근먹이를 위주로 한 TMR사료를 개발, 한우 비육우에 급여해 육질이 부드럽고 향미가 우수하며,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리한우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리한우'는 육질이 부드럽고 향미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근내지방도가 평균 4.25를 보여 일반 거세우 평균 3.9보다 9%가 더 높았다. 또 도체등급은 육질 1등급 이상이 67%로 전국 거세우 평균 출현율 52%보다 훨씬 높았으며, 총사료비 27% 절감, 농가소득 25% 이상 향상됐다.

축산연 관계자는 “이번 보리한우 생산으로 조사료 이용확대는 물론 한우 비육농가에 새로운 비육사료급여 체계를 제시하게 됐다”며 “청정보리 한우 브랜드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8.12】

□ 가축 고온스트레스 진단프로그램 운영

축산기술연구소는 여름철 가축이 느끼는 고온 스트레스를 농민이 직접 진단하고 처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lri.go.kr) 초기 화면에 인간의 불쾌지수에 해당하는 가축의 온·습도지수를 체크할 수 있도록 창을 마련하고 농민이 직접 자기 지역의 온도와 습도를 입력하도록 했다. 농민이 온도와 습도를 입력하면 가축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수치로 제공되고 그에 따른 조치 방법도 제시된다.

【농업인신문 7.27】

□ 2003한국국제축산박람회 내년 7월 코엑스서 열려

2003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내년 7월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된다.

2003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주최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등 단체장들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 우려가 적고, 일반 소비자들과 함께 하기 쉽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